

# 썬 단상(斷想)

## - 협회 최초의 썬

글\_남상욱(썬수집가)

### 해방직후의 썬 발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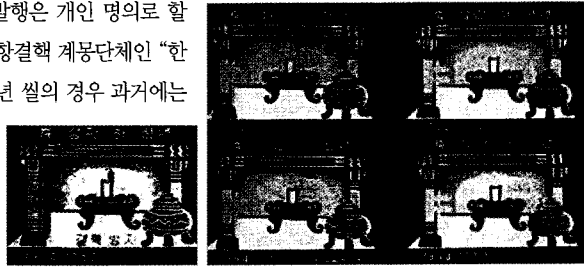
일제시기인 1932년부터 1940년까지 9년간 셔우드 홀(Sherwood Hall) 박사는 황해도 해주의 구세요양원(救世療養院)에 크리스마스 썬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두 9종의 썬을 국내 최초로 발행하였다. 1940년 말부터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 정부의 외국인 추방정책에 따라 박사는 스파이 누명을 쓰고 강제로 추방되었으며, 이후 의료선교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박사는 인도의 아지메르(Ajmer)로 가서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1941년부터 인도에서도 최초로 썬을 발행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항(抗)결핵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썬 발행도 재개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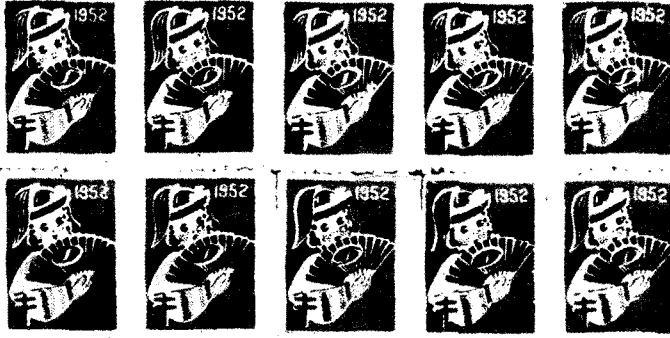
셔우드 홀 박사와 함께 해주에서 근무한 바 있는 문창모(文昌模) 박사는 1949년 4월 세브란스병원장에 임명된 후 셔우드 홀 박사처럼 결핵퇴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해방 후 최초로 “춧불과 향로(1매 10전)”를 도안으로 한 썬을 발행하였다.(그림 1)

도안은 문 박사가 직접 디자인하고 썬 발행은 개인 명의로 할 수 없기에 문창모 박사가 주도하고 있는 항결핵 계몽단체인 “한국복십자회” 명의로 발행하였다. 1949년 썬의 경우 과거에는

▶ 그림1 [춧불과 향로(1949년)]  
▶ 그림2 [1949년 적색누락 썬]



국내에서 입수가 어려웠으나 당시 미군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져간 것이 한때 국내로 역수입되어 단편(單片)은 물론 전지도 수집이 가능하나 전지(구성 9×10)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1949년 짚은 적색이 누락된 에러가 있으며(그림 2) 적색 누락 에러는 블록(Block) 단위로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전지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 그림 3 [부채 든 소녀(1952년)]

1949년에 어렵게 발행된 짚은 다음해인 1950년에 발생한 6.25 동란으로 인하여 계속 발행되지 못하고 1952년 휴전이 될 때까지 짚 발행이 3년간 중단되었다. 휴전 후 문창모 박사는 짚을 다시 발행하기 위하여 박사가 결성한 한국기독교의사회

명으로 “부채 든 소녀(1매 10전)”를 소재로 한 짚을 두 번째로 발행하였다(그림 3). 두 번째 짚의 특징은 인면에 KOREA라는 국호가 있으며 전지 규모는 매우 특이하게 143매(구성 11×13)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는 천공, 세로는 선공(線孔; Rouletted)으로 되어 있다.

이 짚은 당시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았으며 재고도 유실된 까닭에 현존하는 국내 짚 중에서 가장 고가로 입수가 매우 어려운 짚이 되었다. 불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지 입수는 거의 불가능하며, 세계적으로도 전지는 10매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대한결핵협회 발행 최초의 짚

**【대한결핵협회 출범】** 1953년 당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항결핵단체는 조선결핵예방협회, 한국결핵협회, 기독교의사회 세 곳으로 당시의 결핵환자 수는 100만 명을 초과할 정도로 결핵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에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민간 항결핵단체를 강력히 육성하기로 하였다. 1953년 11월 6일 세브란스의대 강당에서 결핵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당시 보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민간단체인 “대한결핵협회”가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12월 1일부터 1주일간은 제1회 결핵예방주간을 선포하고 짚 발행 및 항결핵 예방을 위한 다



▲ 그림 4 [색동저고리 소녀(1953년)]

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협회 발행 최초의 싹】 협회에서는 싹 발행을 통한 항결핵 기금을 조성하고자 1953년 협회 최초의 싹을 발행하기로 하고, 강춘환(姜春煥) 우표 디자이너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의 상반신을 그린 싹을 도안(그림 4), 1매를 50전으로 하여 100만 매를 발행하였다.

우표 디자이너 1세대인 봉마(鵬馬) 강춘환(1918~1978) 선생은 1960년도 이후 발행한 국내우표 도안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결핵 관련 도안과 인연이 많은 분이다. 일례로 결핵예방 강조주간 기념우표(1961년) (그림5), 결핵협회 창립10주년 기념우표(1963년) (그림6), 결핵예방강조주간 기념인 (1960년) (그림7) 등이 강춘환 선생의 작품이다.



▲ 그림 5 [결핵예방강조주간 우표]

▶ 그림 6 [결핵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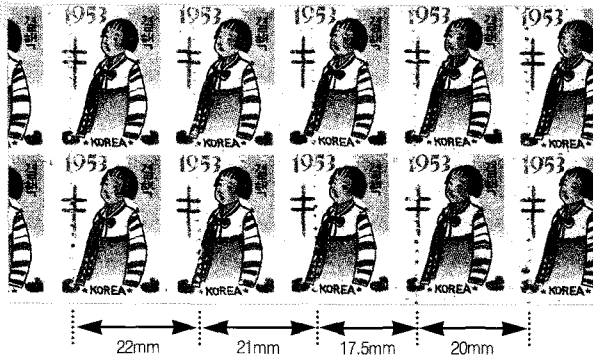


▲ 그림 7 [결핵예방강조주간 기념인]

### 협회 최초의 싹 연관자료

【전지구성】 1953년 싹 전지는 특이하게 180매(구성 18×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49년 싹과 같은 8절지 전지에 싹 1매의 가로가 1949년 싹의 절반 크기인 관계로 가로가 18매로 구성되었다. 전지의 상하좌우에는 변지(邊紙; margin)가 있으며 3코너와 4코너에는 인쇄가늌표(Guide mark)가 인쇄되어 있다. 보건설계지에 게재된 고 이상성님의 “한국의 크리스마스 싹 야화 12편”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싹 주문이 보통 100매 단위이다 보니 결핵협회 직원이 싹을 미국에 우송할 때 경험이 없는 관계로 전지를 100매로 절단하여 발송하여 100매 전지 싹은 미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80매 완전한 전지의 경우는 입수가 매우 어려우며 국내에는 20매 이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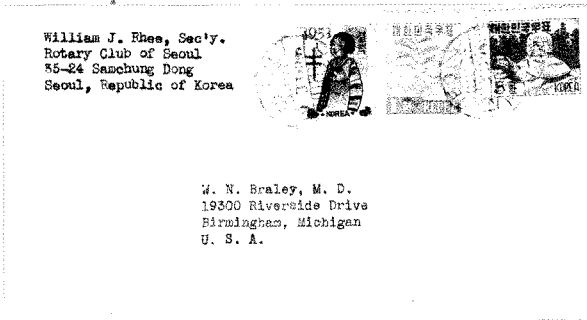
[연관자료] 협회 최초의 실은 당시 인쇄 기술 및 타공(打孔)장비의 미비로 인하여 천공 과정에서 많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공(無孔)도 존재하고 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180매 전지의 경우도 (그림8)과 같이 천공



▲ 그림 8 [천공간격 에러] ▼ 그림 9 [천공위치 에러]



▲ 그림 10 [1953년 무공블럭]



▲ 그림 11 [1953년 실 실체]

의 좌우 간격이 다르게 타공되어 있다. 또한 (그림9)와 같이 천공 위치 에러도 발견되고 있으며 (그림9)의 경우는 인면 중간에 횡으로 천공이 되어 있다.

아울러 무공전지도 국내에서 2매가 발견된 것이 보고되고 있으나 입수는 불가능하며 블록단위(그림 10)의 무공은 지금도 입수가 가능하다.

또한 1953년 실이 첨부된 실체 (實遞 ; 실제로 우편에 사용된 것)는 매우 희귀하며 단순히 실이 봉투나 엽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 인면에 일부 인이 소인된 것이어야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림11)의 경우는 1954. 3.19 미국으로 발송된

우편물로서 1953년 썰에 소인된 매우 귀한 자료이다.

**【같은 도안의 썰 발행】** 1983년은 결핵협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써 협회발행 최초의 썰 도안인 “색동저고 리 소녀” 도안을 다시 편집하여 1983년의 다른 썰과 병행하여 발행하였다.



▲ 그림 12 [1983년 썰(부분)]

1983년 썰은 자연보호 시리즈(No.3)로 9종의 야생동물과 협회 최초의 썰 편집본 1매를 포함한 10종 연쇄썰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협회 최초의 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많은 블로그(Blog) 중에서 1983년 도안을 결핵협회 최초의 썰로 오인하여 게재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1983년도 썰의 경우 “1953년”만 인면에 있으며 썰 하단부에 “결핵협회 최초의 썰”이라는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어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된다. 1983년 썰의 경우는 전지가 특이하게 다양한 천공 구성을 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조사한 것을 보면 ①상발형, ②하우발형, ③상우발형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지의 1코너에 위치한 그림 13의 썰을 예로 들면 천공의 상태는 다음의 표와 같다. †

1953년 썰	변지의 천공	그림 13번 썰의 상변지	그림 13번 썰의 좌변지
	① 상발형	변지 전체에 천공(11개)	변지에 천공(4개)
	② 하우발형	변지에 천공(5개)	천공 없음
	③ 상우발형	변지 전체에 천공(11개)	천공 없음

◀ 그림 13 [1983년 발행본]



이 글은 쓴 남상욱 님은 서초우취회 부회장으로 현재 (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서 있으며 저서로는 공학서적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이 있습니다.